

군산서 故하반영 화백 기증작품 만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개관 10주년 맞아 '삶을 담은 미술언어' 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분관인 군산근대미술관(구 18은행)에서 故하반영 화백의 작품 35점을 전시하는 '삶을 담은 미술언어'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故하반영 화백은 한국예총 부회장, 전북지회 부지회장 등을 지내고, 김대중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광복 50주년 미술부문 대상, 프랑스 '르 샬롱' 전 금상 등 국내외 다수의 수상과 전시경력을 지닌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다. 군산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서울과 전주, 해외에서 작품활동을 펼치다 90대에 군산으로 귀향해 지난 2015년 타계까지 열정적인 작품활동을 펼쳤다.

화백은 자신의 작품 중 일부를 사회복지재단, 독거노인, 독립유지녀, 불치병 환자 등을 위해 기증했으며, 군산에 작품 100점을 기증, 편견과 차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제공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전시 작품은 한국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대표적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단감과 복숭아가 나오는 '스타스키꽃이 있는 정물', '정물', 국내외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풍경화인 '안개 낀 바다', '바루비종의 가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어머니의 장상'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연일 지속되는 더위로 다소 지쳐있는 시기이지만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증의 뜻을 기리는 취지를 담아 위안을 주는 예술작품 위주로 전시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근대미술관은 국가등록문화재 제 372호의 근대건축물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건물로 연 4회 전북도립미술관 등 타 미술관 연계 기획전과 군산출신의 원로작가 초대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분관인 군산근대미술관에서 故하반영 화백의 작품 35점을 전시하는 '삶을 담은 미술언어'전을 개최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카드뉴스 'JB 정책 한 컷' 발행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재단의 정책이슈와 방향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달부터 카드뉴스 'JB 정책 한 컷'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JB 정책 한 컷은 소개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미지와 짧은 글로 재구성하는 카드뉴스로 제작되기 때문에 보다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문화와 관광분야의 정책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29일 발행되는 첫 번째 카드뉴스에서는 도내 매력적인 미이스 행사장소인 '전라북도 유니크베뉴'를 소개하며, 재단 홈페이지, SNS 게시와 함께 이메일과 재단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자료는 6월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전라북도 유니크베뉴'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선정공간과 전북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전파하기 위해 공간소개, 이미지와 더불어 관광명소가 미이스 행사장소로 활용되는 장점 등을 소개한다.

구해경 팀장은 "전라북도와 재단의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정책연구팀(063-231-743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부안군문화재단, 직원 공개모집 재공고

부안군은 재단법인 부안군문화재단의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사무국장 및 팀장 등 직원공개모집 재공고를 냈다.

채용계획인원은 사무국장 1명 및 팀장 2명, 직원 4명 등 총 7명으로 당초 지난 19일까지 직원 공개모집을 추진했으나 채용공고 방침인 채용계획인원의 2배수 미만 접수로 인해 재공고를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우편접수 후 유선확인도 필수사항이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국립민속국악원, 8~11월까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서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8월부터 11월까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개최하며, 8월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관 전시실에서 명사의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국악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김병종



황인우

8월 4일은 김병종 화가가 남원시에 그림을 기증하게 된 일화, 유년시절 대표작품 ▲바보예수 ▲생명의 노래 시리즈 ▲화첩 기행에 등장하는 국악인에 대한 이야기와 김 화가의 주옥같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가야금 연주자 황인우의 신관동별곡 등 가야금과 바이올린, 첼로가 함께 어우러진 연주로 공연의 분위기를 더한다.

8월 11일은 심야페스티벌에 패널로 출연 중인 객석 작가가 출연해 ▲기묘한 이야기, 민화 속 괴담을 주제로 구성된 입담을 풀어낸다. 카이스트 대학을 5학기 만에 졸업하게 된 일화, SF 소설을 처음 쓰게 된 학창시절의 추억 등 객석 작가의 특색 있는 상상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거문고 연주자 김준영이 이끄는 거문고앙상블의 ▲무영탑 ▲낮은 목소리 등 현대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크리에이터 토크콘서트' 개최 눈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매해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전당에서 자체 제작하는 '프로젝트 슈퍼히어로'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2021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다.

올해는 막연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자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3부에 걸쳐 도민과 소통한다.

첫 주제는 인지 심리학자인 김경일 아주대학 심리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OtvN '어쩌다 어른' 등의 TV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김 교수가 내세운 주제는 '인생! 까짓 것!'으로 오는 31일 오후 2·7시 2차례에 걸쳐 도민들을 만난다. 그는 심리학의 관점에서 인생을 조명하는 그의 이야기는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도와준다. 코로나19로 수많은 계획이 어긋나며,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을 느끼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쓴이다. 다음 달 7일 '사랑과 자존감'을 주제로 강연한다.

마지막 주제는 지역 예술인 임호영씨로, 다음 달 14일에 싱어송라이터 전태익, 무예공연예술단 지무단 등의 특별게스트와 함께 더욱 다채



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토크콘서트는 발열 체크 및 동반자 외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하며, 도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특별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토크쇼를 관람할 수 있다. 또 공연마다 소외계층 30%를 초청해 함께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